

(주) 남경

R&D 연구개발에서 해외 NETWORK 확장으로

남경

1. 남경 소개

남경은 국내 점적관수 부문의 대표적인 제조/유통 업체로 “세계 속의 남경”을 목표로 쉼 없이 전진하고 있다. 1996년도부터 시작하여 수입산 일색이었던 점적관수자재 시장의 국산화를 이뤄냈다. 남경이 개발한 점적관수 호스와 테이프는 국내 여건에 맞고 우수한 성능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또한 작물에 물을 균일하게 공급해 생산량 증대와 고품질 농작물 생산 및 일손 절감효과를 나타내며 입소문을 탔다.



현재 남경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50%를 상회하며, 해외기업보다 후발 주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던 비결은 좋은 품질과 신속한 A/S덕분이다. 실제로 남경은 농민들에게 불량이 없는 고품질의 점적관수자재를 공급하기 위해 부품 하나하나까지 철저히 점검하고, A/S당일처리 원칙을 고수하며 신뢰를 쌓고 있다. 또한 회사 내에 연구센터를 두고 호스가 수압으로 인해 막히거나 터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으며, 하자 발생시에는 철저한 피드백을 통해 원인을 파악한다. 각 도마다 A/S 전문인력을 상주시켜 고객의 요청이 있으면 전국 어디든 즉시 처리하는 것도 눈에 띈다. 그래서인지 남경의 제품은 타 업체보다 가격이 10~20% 비싸도 인기가 좋다.

남경은 국내시장에서의 인지도와 신뢰도를 바탕으로 세계로 발을 넓히고 있다. 현재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란, 일본, 몽골, 호주 등 전세계 15개국에 점적관수 자재를 공급하고 있다. 2000년도 후반기부터 국내시장은 제로섬 게임(ZERO-SUM GAME)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더 큰 미래를 향해 과감히 세계로 시각을 돌렸다. 2015년 기준 300만 달러를 넘어서며 지속적인 수출액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으며, 2016년말 6,000평 규모의 공장 확장 이전으로 작업환경 개선 및 생산효율화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향후 5~6년내 수출 1,000만 달러를 목표로 정진하고 있다.



2. 남경 주요 연혁

남경은 1997년 국내 최초로 점적관수 테잎을 개발하여 국내 보급하기 시작하여, 지속적인 신제품 개발 및 시설 확장으로 다양한 점적관수 제품을 구비한 명실상부 국내 제 1의 점적관수자재 유통업체로 성장하였다. 2009년 산림청 주관 몽골 사막화방지사업 참여로 대단위 점적호스를 해외로 공급함으로써 해외시장으로 진출하게 되었으며 2013년 수출 3백만불의 쾌거를 이루었다. 2012년에는 자동관수시스템인 “웅달샘” 시리즈를 국내시장에 선보이며 정밀시설농업 실현과 부흥에 이바지하고 있다.



몽골 사막화 방지사업



남경의 성장에 주요 원동력인 지속적인 혁신과 제품개발의 의지는 2015년 농림수산물식품부 수출유망 점적관수장치 핵심제품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주관기관 선정에 이르게 한다. 서울대, 경북대, 충남대, 시설원예연구소, 환경농업연구원 등 중 8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형태이며, 당 정부 프로젝트의 목적은 국내 수입자재들을 대체하고 추가로 세계시장에서도 품질/가격 경쟁력을 가지는 첨단생산기술 및 제품을 개발하는 3년간 21억의 장기 연구과제이다.



2016년 5월 대통령의 이란 국민방문 시 남경은 이란경제사절단으로 참여하여 40ft컨테이너 6대 분량인 점적테잎 60만 달러의 계약을 성사시켰다. 그해 5월에 한국농어촌공사 해외사업관련 MOU를 체결하고, 11월에는 한국관개배수위원회(KCID) 정식회원사로 등록하여 해외시장으로의 네트워크 확장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2016년 10월 화성시 양감면 3만평 부지에 6천평의 공장으로 확장 이전하여 세계 최고의 제품 개발과 첨단기술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3. 남경의 연구개발

20년전만 하더라도 국내 점적관수시장은 대부분 수입품 일색이었으며, 그 중 일부는 국내 여건에도 맞지 않아 국내 농업현장에서 어려움이 많았다. 남경의 국내 최초 점적관수 테이프 “워터폴 (WaterFall)” 시리즈는 이런 국내 소비자의 기호에 맞춰 개발된 제품이었으며, 그 이후에도 “마스터드립 (MasterDrip)” 시리즈, “워터라인 (WaterLine)” 시리즈, 그리고 “N”타입 시리즈 등 끊임없이 신제품을 개발 보급하며 변화에 대응하는 혁신의 끈을 놓치 않았다.



10여년 전부터 점점 늘어나는 시설원에 하우스 농가들은 점적관수 자재의 정밀도를 요구하게 되었고, 남경은 그 수요에 부응하는 점적관수자재들을 새롭게 개발하여 왔으며, 시설원에 하우스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관수시스템(관비기, 양액기) 개발 및 증강은 향후 10년간 먹거리 아이টে이라 불리어 진다.



해마다 시설재배 면적이 확대되고 정밀시설농업이 요구됨에 따라 자동화 기술을 통한 수분 공급은 농가의 필수사항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수입에만 의존하던 점적관수 자재와 생산설비를 국산화하고 수출을 활성화시키고자 ‘첨단생산기술개발사업’이라는 연구과제를 진행중이며, 남경이 2015년 9월부터 2018년 9월까지 3년간 8개 기관이 참여하는 ‘수출유망 점적관수장치 핵심제품개발’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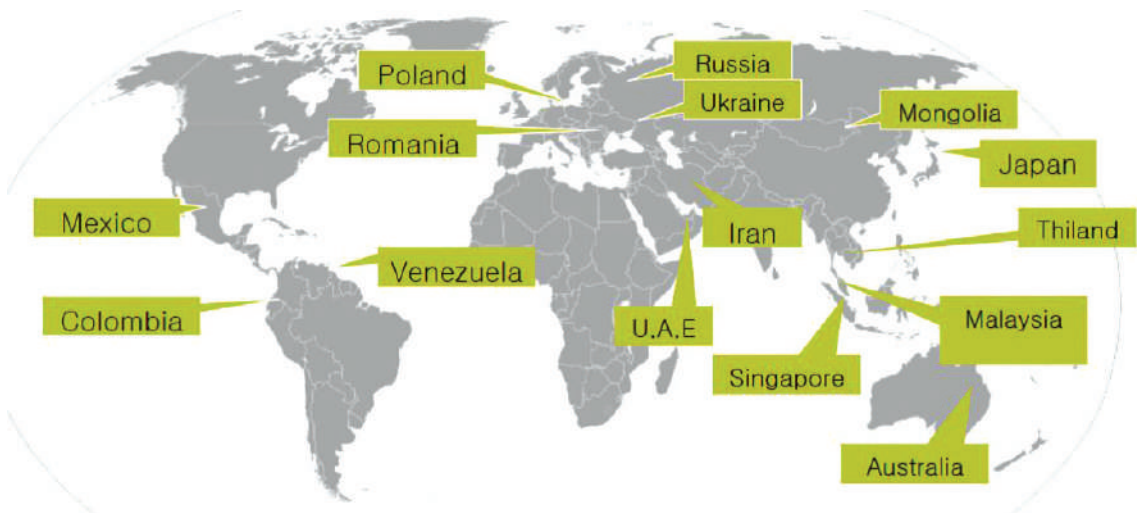
이에 남경을 필두로 서울대학교, 경북대학교, 충남대학교, 시설원예연구소, 환경농업연구원, 그리고 2개 민간기업으로 구성된 당 연구프로젝트 팀은 초고속점적테잎 생산설비, 압력보상형 점적호스, 압력보상형 단추, 압력보상형 스프링클러, 솔레노이드 전자밸브, 농업용여과기, 자동역세여과기, 대용량 모래여과기등의 신속한 기술 및 제품개발을 통하여 이스라엘, 미국, 유럽의 선진농업국

가에 역수출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연구에 임하고 있다.

남경은 실용화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 중인 만큼 현재 구축된 수출국뿐만 아니라 인도, CIS지역, 사우디아라비아, 네덜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미국, 중남미 국가 등으로 수출국을 확대하여, 최종 6개 대륙 26개국에 남경의 경쟁력 있는 점적관수 제품 보급을 위해 노력 중이다.

4. 해외시장으로의 NETWORK 확장 계획

남경은 2009년 5월 산림청에서 몽골 사막화 방지를 위해 추진하는 산림녹화사업에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 이후에 자체적으로 신시장 개척에 나섰다.



2011년에는 중소기업청과 경기도청에서 지정하는 유망수출기업으로 각각 지정될 정도로 그 수출 물량이 매년 증가하였고, 급기야 2013년도 세계 15개국에 300만불의 수출 실적을 돌파하였다.

창립 이래 끊임없는 점적관수제품의 기술 투자와 농림수산물식품부의 수출유망 점적관수장치 핵심제품 연구개발등으로 5년 이내 수입품 대체효과를 획득하고, 이스라엘, 미국, 유럽의 선진농업국에 역수출하는 토대를 마련하여 6개 대륙 26개 국가에 남경의 점적관수 제품을 보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경은 2016년 이란경제사절단으로 참여하여 인연을 맺기 시작한 한국관개배수위원회(KCID)의 지원으로 당해 6월 한국농어촌공사와 해외민관협력(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사업 동반 기업 MOU를 체결하게 되었다.

앞으로 남경은 기존의 국내영업 라인과 해외 수출 네트워크 토대 위에서 정부, 학회, 그리고 농업단체 네트워크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세계 점적관수시장에서 강소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